

독락당(獨樂堂)-박인로

* 교재 지문 앞부분

자옥산 명승지에 독락당이
 맑고 깨끗함을 들은 지 오래로되
 이 몸이 무인(武人)으로서
 바다의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일편단심의 충의를 떨치지 못해서
 창을 들고 말을 몰아 여가 없이 분주하다가
 (독락당을)마음 속 사모함이
 늙은이(화자 자신)에게 더욱 깊어
 죽장망혜(대나무 지팡이와 짚신)로 오늘에야 찾아오니
 못 봉우리는 수려하여 무이산(송나라 유학자 주희가 살
 던 곳의 산)이 되어 있고
 흐르는 물은 휘감아 돌아 후이천(송나라 유학자 정이가
 살던 곳의 냇물)이 되었도다.
 이러한 명승지에 임자 어찌 없었던가?

: 늙어서야 찾아간 독락당의 빼어난 경치

일천 년 신라와 오백 년 고려에
 현인, 군자들이 많이도 왔으련만
 하늘도 아끼고 땅이 숨겨
 내 선생(이언적)께 남겼도다.
 물각유주(物各有主:사물은 저마다 주인이 있음)어든
 다룰 이 있을쏘냐?

: 이언적선생에게 어울리는 독락당

*교재 지문 수록부분

푸른 덩굴을 헤쳐 들어 독락당을 지어내니
 그윽하고 한가한 경치는 견줄 데 전혀 없네.
 수많은 대나무 시냇물 따라 둘러 있고
 만 권 서책은 네 벽에 쌓였으니
 왼쪽엔 안증(공자의 제자 안희와 증삼),
 오른쪽엔 유하(공자의 제자 자유와 자하)
 서책을 벗 삼으며 시 읊기를 일삼아
 한가로운 가운데 깨우친 것을 혼자서 즐기도다.
 독락, 이 이름 뜻에 맞는 줄 그 누가 알리.
 사마온공 독락원이 아무리 좋다 한들
 그 속의 참 즐거움 이 독락에 견줄쏘냐.

: 한가롭게 책을 읽던 회재 선생을 추모함

진경을 다 못 찾아 양진암에 돌아들어
 바람 쐬며 바라보니 내 뜻도 뚜렷하다.
 퇴계 이황 자필이 참인 줄 알겠노라.
 관어대 내려오니 펼친 듯한 반석에 자취가 보이는 듯.
 손수 심은 장송은 옛 빛을 띠었으니
 변함없는 경치가 그 더욱 반갑구나.
 상쾌하고 맑은 기운 난초 향기에 든 듯하네.

: 옛날과 비교하여 변함없는 경치를 반가워함

몇몇 옛 자취 보며 문득 생각하니
 우뚝한 낭떠러지는 바위 병충 절로 되어
 용면의 솜씨로 그린 듯이 벌여 있고
 깊고 맑은 못에 천광 운영이 어리려 감겼으니
 광풍제월이 부는 듯 비치는 듯.
 연비어약을 말없는 벼으로 삼아
 독서에 골몰하여 성현의 일 도모하시도다.
 맑은 시내 비껴 건너 남시터도 뚜렷하네.
 묻노라, 갈매기들아. 옛 일을 아느냐.
 엄자릉이 어느 해에 한나라로 갔단 말인가.
 이끼 낀 남시터에 저녁연기 잠겼어라.

: 성현을 닮으려고 노력하신 선생 추모

봄옷을 새로 입고 영귀대에 올라오니
 고금 없이 좋은 경치에 맑은 흥 절로 나니
 풍호영이귀(공자의 제자 증점이 바람 쏘이고 읊조리며
 돌아옴)를 오늘 다시 본 듯하다.
 대 아래 연못에 가랑비 잠깐 지나가니
 벽옥같은 넓은 잎에 퍼지는 것 구슬이로다.
 이러한 맑은 경치 봄 직도 하다마는
 염계 가신 후에 몇몇 해를 지냈는가.
 변함없는 맑은 향기 다만 혼자 남았구나.
 안개 비긴 아래에 폭포를 멀리 보니
 붉은 벼랑 높은 끝에 긴 냇물 걸린 듯.
 향로봉 그 어디오, 여산이 여기인가.
 징심대 굽어보니 찌든 가슴 새로운 듯하다마는
 적막한 빈 대에 외로이 앉았으니
 맑은 바람 잔잔한 물에 산 그림자 잠겨 있고
 우거진 녹음에 온갖 새 슬피운다.
 배회하고 생각하며 참된 자취 다 찾으니
 탁영대 연못은 고금 없이 맑다마는
 어지러운 속세에 사람들이 다투니
 이리 맑은 연못에 갇힌 썬을 줄 그 뉘 알리.

: 영귀대의 경치를 보며 세상을 개탄함

* 교재 지문 뒤

사자암 높이 올라 도덕산을 바라보니
구슬이 빛을 머금고 있음(선생이 덕을 드러내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이 알아준다는 뜻)은 어제인 듯 하지마는
봉황이 날아가 버려(선생은 돌아가셔서) 산은 비었으니
두견만 밤에 운다.

도화동 내린 물이 밤낮 없이 흘러서
떨어진 꽃조차 흘러오니
천태(중국의 산 이름)인가 무릉인가
이 땅이 어디인 것인가

신선들이 놀던 자취가 아득하니
어디인 줄 모르겠네.

인자(仁者)도 아닌 몸이 무슨 이치를 알라마는
산이 좋아 기이한 바위를 의지하여
시냇가의 경치를 살펴보니
만 가지 보랏빛, 천 가지 붉은 빛은
비단 빛이 되어 있고
풀과 향기로운 꽃은 바람에 날려 오고
산사의 종소리는 구름 밖에서 들리는구나.
이러한 모습을 범희문(송나라의 문장가)의 문필이라 한
들 다 써내기 쉬웠겠는가.

눈에 가득히 전개되는 풍경이
나그네의 흥을 돋우는 듯.
여기저기 거닐어서 일부러 천천히 돌아오니
눈앞의 서산 봉우리에 저녁 해가 거의 지네.

: 사자암에 올라 도덕산의 경치를 바라봄

독락당에 다시 올라 좌우를 살펴보니
선생 풍채를 친히 만나 뵈옵는 듯.
자나 깨나 눈에 선함이 확실하여
아래를 굽어보고 위를 우러러보며 탄식하며
당시 하시던 일을 다시금 생각하니
밝은 창과 고요한 책상에서
세상일에 관한 근심을 잊으시고
성현의 책에 뜻을 두어 공부를 이뤄 내어
성현에게 배우고 후인을 가르침에
우리나라의 도를 밝히시니
우리나라의 군자의 덕을 즐긴 선비는
다만 선생뿐인가 여기노라.
하물며 효제(孝悌)를 근본으로 삼고
충성을 베풀어 내어 조정에 나아가
직설(순임금의 유명한 신하들)의 몸이 되어
요순의 태평시대를 이룰까 바라다가
시운이 불행하여 충현을 멀리하시니

듣는 이 보는 이 깊은 산 속 험한 골짜기엔들
누가 아니 슬퍼하리.

칠 년 동안 긴 귀양살이에 하늘 해를 못 보고
깊이 성찰하며 덕만 닦으시니

바르지 못한 것이 바른 것을 이기지 못하니

공론이 절로 일어 도덕을 숭상함을

사람마다 할 줄 알아

강계는 귀양지로되 끼쳐 놓은 교화를 못내 잊어

궁벽한 시골에 사당(경현 서원)을 세웠으니

선비들의 추앙이야 더욱 말해서 무엇 하겠는가.

: 선비들이 선생을 추앙하여 사당을 세움

자옥산의 자연 경치 위에 서원을 지어 두고

재주 많은 선비들이 거문고를 타고

글 읽는 소리를 이었으니

많은 여진 선비들이 이 땅에 다 모인 듯

구인당(옥산 서원의 사랑채) 돌아올라

체인묘(옥산 서원의 사랑채)도 엄숙할사

끊임없는 (후세 사람들이 지내는)제사가 우연이 아닌
일이로다.

세월이 흘러도 우러러 높이고 모시는 것을 못내 하여
후인들이 기리는 것이 더욱 번성하게 되었구나.

우리나라 문헌이 한당송에 비기리라.

자양 운곡(주자가 독서하던 곳)도 아아 여기로다.

세심대 내린 물에 선생의 은혜가 이어 흘러

용추(연못) 깊은 곳에 신물조차 잠겼으니

조물주의 오묘한 솜씨가 그 더욱 기이하여

끝없는 경치를 다 찾기 어려우니

즐거움에 취해 돌아감도 잊어

열흘이나 한 달 넘는 동안 머물며

고루한 이 몸에 정성을 다하여 공경함을 넓게 하여

선생 문집을 자세히 살펴보니

천 마디 만 마디가 다 성현의 말씀이라.

도학의 맥과 공부의 과정이 해와 달같이 밝으시니

어두운 밤길에 밝은 촛불 잡고 간 것 같다.

진실로 이 남기신 교훈을 마음속에 가득 담아

바른 마음을 가져 수양함을 넓게 하면

말은 충성스럽고 행실은 두터워 사람마다 어질도다

선생 끼쳐 놓은 교화 지극함이 어떠한가.

후생들아 추앙을 더욱 높이

천년만년 오래도록 태산과 북두칠성같이 바라여라.

하늘이 높고 땅이 두터움도 마침내 끝이 있으려니와

독락당의 맑은 기운은 끝이 없을 듯 하도다.

: 독락당에 다시 올라 선생의 유훈을 생각함